◇판화가 정비파씨의 목판화 작품 '십일면 관세음보살.'

전통불화-현대불화-판화-금니사경-전각展

봉축전시회 가면 '환희심'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를 봉축하는 전시회가 풍성하다. 특히 이번에는 전통불화와 현대불화, 선화, 판화, 금니사경, 전각 등 그 어느 때보다 전시의 종류가 다양해 IMF로 스산해져 있는 불자들의 발걸음을 모처럼 전시장으로 이끌어 들일 것같다.

목판화가 정비파씨는 22~28일 서울 공평아트센터(02-733-9512), 5월4~8일 부산 국제신문사 전시실에서 '천년의 미소 세상속으로' 목판화전을 갖는다. 본존상을 비롯한 석굴암 불보살상의 질감과 골격을 그대로 재현시킨 대형 목판화가 마치 석굴암의 신비가 그대로 옮겨온 듯한 감동을 준다.

25일까지 영동 예맥화랑(02-543-8952)에서 '색시공전'을 열고있는 추경씨는 불상 범종 연꽃 물고기 탑 등을 무정형의 화풍으로 형상화한 '만다라' '열반' '팔정도' '피안' 윤회' 등을 선보여 현대적 불화의 밝고 감미로운 멋을 느낄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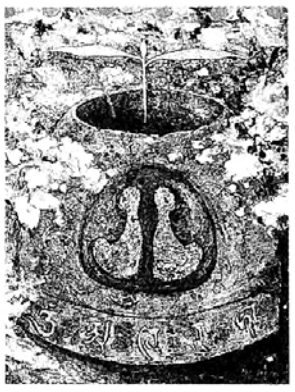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전연호)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02-260-3098)에서 불교미술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연호 김익홍 허길용 이진형 김의식씨 등 회원 30여명의 불화와 조각 서예 등 1백여 작품이 전시되며 이번 특별전의 판매수익금은 전액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기탁될 예정.

상묵스님(지통사 주지)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하동 지통사 선화당(0595-83-3751)에서 '동심전'을 연다. 채색화를 선(禪)에 접목하여 담백하게 그린 그림 60여점은 수행에서 우러난 선적 고요를 안겨준다.

서예가 창봉 박동규씨는 5월6~12일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금니법화경 사경전을 갖는다. 박씨가 1년 6개월간에 걸쳐 완성한 금니법화경은 감지에 예서체로 썼으며 총 길이만도 300m나 되는 대작이다. 박동규씨는 전시가 끝난후 이 법화경을 제주도 고관사 사리탑에 봉안한다. 전각가 서용철씨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금강경 전각전을 개최한다. 금강경 총 5440자(字)를 해남옥돌 1207과에 새겨놓은 이번 전각전은 금강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보리' 자를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볼수 있는 등 금강경의 뜻을 새기며 다양한 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가톨릭신자이면서 불경을 전각해 화제를 모은 서용철씨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전시로 열게돼 타종교예술인으로서 더욱 기쁘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전각가 서용철씨의 금강경 전각작품.



◇추경씨의 현대불화 '열반Ⅱ'.

불심시심 〈126〉

얼굴 빛 어린이 되다

坐處凌雲頂 (좌처능운정)	앉아 있는 곳 구름 이마 누르고
歸程踏鳥空 (귀정답조공)	돌아갈 길은 새나 밟는 허공이지
倚笻仍石上 (의공잉석상)	지팡이 의지하여 바위 위에 서서
回首更山中 (회수갱산중)	머리 돌리면 다시 산속일세
落葉看流水 (낙엽간류수)	지는 잎에 흐르는 물 살피고
疎鐘記晩風 (소종기만풍)	성근 종소리 늦바람임을 알겠네
邇來留靜界 (이래유정계)	요사이 고요한 세계에 머물러 있어
頹髮覺成童 (안발각성동)	안색이나 모발이 어린이 됨을 알겠다.

'봉황 보금자리의 깊은 삶(鳳樓幽居)'이란 징월대사의 시이다. 높은 산 깊은 산중에 살아, 순진한 동심으로 되돌아감을 은연중에 강조한 시이다. 사는 곳의 깊숙함이 얼마인가. 구름을 능가하는 자리이다. 어찌 사는 환경만이 그러랴. 삶의 기개가 그러하리라. 이것이 스님들의 기상이다. 가는 길은 새나 날수 있는 허공이다. 시구는 새의 허공을 밟는다 하였다. 어떻게 허공을 밟을 수가 있는가. 일상적 상상에는 용인키 어려운 수사다. 신선에게는 날다(飛)의 접두사를 인정하여 비선이라고도 하니, 신선의 경지라 해 둘까.

가던 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니,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고 보면 역시 바위 끝이다. 머리 돌려 살펴 보면 또한 산속이다. 이것이 지금 삶의 깊이이다. 여기서 '다시(更)'라는 한 단어의 묘미를 살필 일이다. 산을 벗어나는가 하여 돌아보면 다시 산이다. '깊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런 단어선택의 묘이다. 이것이 시인의 수사적 우월성이다.

땅 위에 지는 잎은 지고 나면 잘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은 흐름의 실체를 시선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낙엽과 유수가 만나면 두 실체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물에 떠 있기에 지는 잎이 분명하고 잎이 떠 있기에 흐르는 물의 이동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낙엽에서 유수를 본다는 평범함이 시의 무미성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종의 울림에 시간과의 함수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늦종(晩鐘)'으로 대유되는 사원의 종은 바로 종교적 심원을 울려주게 한다. 여기에 늦저녁 바람기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조용한 경지 이것이 요즘의 삶이다. 여기서 지내는 세월은 속가의 시간과는 역행되는 시간이다. 어린이로의 환원이 성불의 또 한 좌표가 아닌가. 이증찬 〈동국대 교수〉

탱화인생 60년 회향

고재석스님 첫 불화전

광주 남도예술회관, 29일~5월 3일

29일부터 5월3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 1층전시실에서 열리는 '낭월 고재석스님 불화전'은 재석스님의 탱화그리기 60년 인생을 마무리하며 여는 첫 전시회.

15세에 당시 최고 금어였던 김일섭스님(86년 입적)을 만나 탱화를 시작한 재석스님(75·전남도 무형문화재 탱화장 31호)은 개성 안화사 대작불사를 시작으로 순천 송광사, 제주 관음사 등 전국의 크고작은 사찰을 두루 돌며 불화를 그려낸 금어(金魚)이다. 지금까지 스님이 완성한 탱화는 전국사찰에 5백여점이 넘지만 스님은 잘 안 알려져 있었다. 산사에 묻혀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한 조카가 81년 스님몰래 제10회 불교미술대전에 후불탱화를 출품, 입상한 게 알려진 내력의 전부일 정도로 초야에서 탱화에만 정진해 왔다.

"탱화의 생명은 정성입니다. 원래 탱화란 신령들이 그려야 하는데 하물며 범인(凡人)들이 그리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부처님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탱화엔 신기로운 영기가 서려 있어야 합니다."

달마도 사군자 글씨에도 능한 재석스님은 이번 전시에 맞춰 화력(畵歷) 60년을 한데 모은 불화집도 발간한다. 〈석〉

"용성스님 음악으로 환생"

국악교성곡 '용성' 23~25일 국립극장서 공연

민족의 독립과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이 음악으로 되살아난다. 국립국악관현악단(단장 박범훈)은 23~25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국악교성곡 '용성'을 공연한다. 도문스님(대성사 조실)의 원작을 목정배교수(동국대)가 작시하고 박범훈교수(중앙대)가 작곡한 '용성'은 서곡, 서가, 탄생, 어린 시절, 출가, 예불, 시련, 삼일운동, 나라는 어디가고, 대각운동, 왕생가, 깨침이여 밝음이여, 불타성지 가꾸어가세 등 1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음악 서사시이다.

이번 공연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70여명의 단원과 50여 국립합창단원, 한마음선원 대각사 불광사마하보디 삼보사 합창단, 중앙불교합창단 등 연합 합창단과 법현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 안숙선 김성녀 유희성 씨 등이 솔로로 출연하는등 총 7백여명이 무대를 장엄한다.

이번 '용성' 공연은 극적인 장면에서는 연극적 요소를 가미, 입체적인 볼거리를 연출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관객들도 함께 합창에 참여하며 휘나레를 장식한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02)274-1151

3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정현종시인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스님)가 주최하는 제3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정현종시인(60·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의 '새여 꽃이여'가 선정됐다.

'새여 꽃이여'는 시인의 불교적 화두라 할 수 있는 '침묵'과 '무언'을 더 깊게 심화시켜 사람의 말과 움직임을 넘어선 지점에 시적 영역을 확보하고 삶과 자연을 일체화시키려는 시인의 몸놀림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무게를 안겨준다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8일 오후 5시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거행됐다.

새여 꽃이여

새가 울 때는
침묵
꽃이 피어
無言

새여
너는 사람의 말을 넘어
거기까지 갔고
꽃이여
너는 사람의 움직임을 넘어
거기까지 갔으니

그럴 때 나는
항상 조용하다
너희에 대한 한탄을
너희의 깊은 둘레를
나는 조용하고 조용하다

'부처님일대기' 완창

안숙선씨, 26일 도안사

명창 안숙선씨(국립창극단장·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가 26일 안성 도안사(주지 송암)에서 부처님일대기를 판소리로 완창한다.

김재영법사(동덕여고)가 쓴 대본을 토대로 한 이번 판소리 '부처님일대기'는 부처님의 전 생애를 '강생' '고뇌와 출가' '고행과 항마성도' '전법륜' '대열반' 등 다섯 대목으로 나누어 2시간 30분동안 부르게 된다. (0334)676-8700

문화 단신

부루나합창단 발표회

수덕사포교원 광명 서천사(주지 진석)는 26일 오후 3시부터 광명1동 새마을금고 2층 강당에서 제2회 부루나합창단 발표회및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부루나합창단은 찬불가를 음성공양하고 도신스님, 이청훈, 안충근, 강상영씨 등 7수들이 초청공연하며 강정균씨가 판토마임을 벌인다.

문화상품권 '불티'

영화와 연극 미술 비디오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의 인기가 점점 치솟고 있다. 상품권 관리회사인 한국문화진흥에 따르면 3월 15일 첫 발매후 4월 15일까지 한달동안 무려 33억원어치가 팔렸으며 자동차·전자·생명보험 회사 등이 대량구매를 하고 있고 결혼식의 하객들에게 주는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는 것.

문화상품권은 현재 전국의 주요 영화관 공연장 음반 비디오판매점 등 3천5백여개 가맹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불교전문서점인 책방 여시아문(02-737-0695)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광주불방합창단 공연

광주 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개국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함께 합창단 창단 발표회를 갖는다. 24일 오후 7시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 기념법회 2부 광주불교방송 합창단 발표회로 진행된다.

광부불교방송 합창단은 현지스님이 단장, 모채남씨가 지휘를 맡고 있으며 5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참회합니다' '보리심' 등 10곡의 찬불가를 발표한다.

IMF 시대의 가정 상비약!!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남산 스님의 파스 요법

1,000원만 가지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고통 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파스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술을 마신 다음 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파스 한 장이면 말끔!

오래된 위장병도 파스
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싹!

잠 못 이루는 불면증도 파스를 붙인 후
20분이면 잠들게 하는 신비한
비법을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명상
TEL 733-4277
FAX 733-4279

각 질병에 대한 파스 요법의 실체

■ 소화기 질병 12종
신경성 위장병 · 위 궤 양 · 위십이지 궤양 · 설 사

■ 호흡 순환기 질병 8종
기관지 천식 · 중 이 염 · 감 기 · 두 통

■ 비뇨기 질병 12종
당 뇨 병 · 생 리 통 · 발기부전 · 변 비

■ 신경계 질병 28종
어깨의 통증 · 좌골 신경통 · 만성관절 류마티즘 · 치 통

■ 기타 질병 15종

■단체 강연 및 개인 강연회 참석요청이 쇄도하고 있사오니 2주일 전에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TEL 733-4277~8 / 전화주문시 발송료는 출판사에서 부담합니다 외환은행 022-13-440647-8 예금주 이영기